

조선/기계/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

02. 6454-4879  
kiyeon.bae@meritz.co.kr02. 6454-4873  
jungha.oh@meritz.co.kr

2023. 8. 29 (화)



##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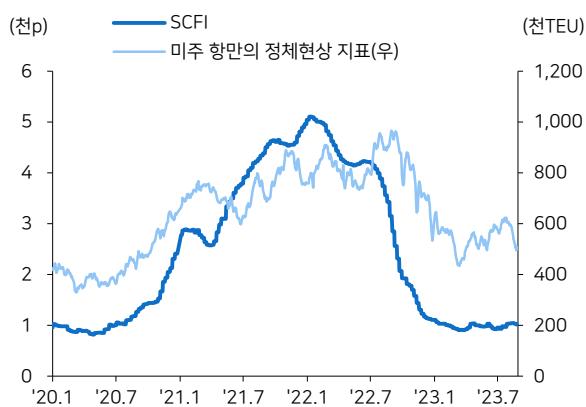
## 건화물운임(BDI)

1,080.0p(- DoD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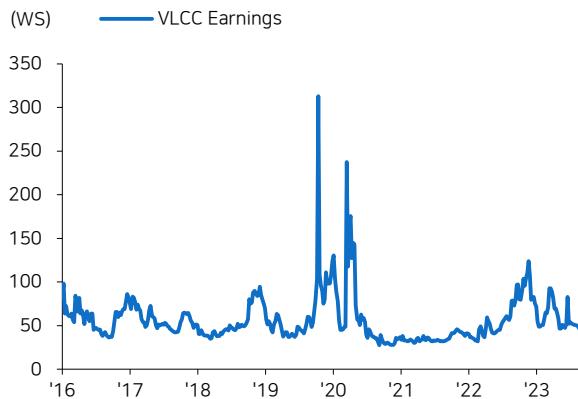
## 컨테이너운임(SCFI)

1,013.8p(-17.2p WoW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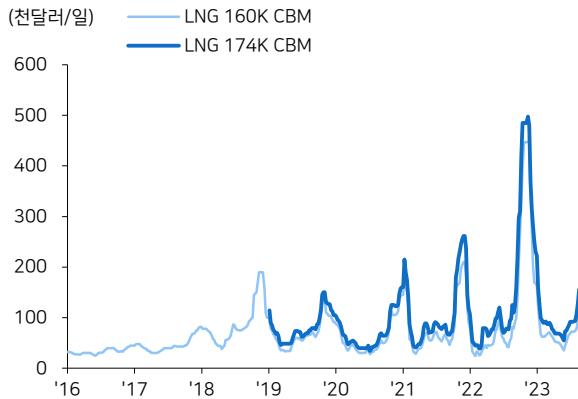


## VLCC Spot Rate

45.5p(-1.3p WoW)



## LNG Spot 운임

120.0천달러(+2.5천달러 WoW)  
160.0천달러(+5.0천달러 WoW)

##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

173.6p(+0.6p WoW)  
148.8p(- WoW)

## 중국 내수 후판가격

552.0달러(- DoD)



자료: Clarksons,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##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### HSD엔진, 삼성중공업에 3,821억 규모 엔진 공급

HSD엔진이 삼성중공업에 선박용 엔진 3,821억원어치를 공급한다고 공시됨. 납품 기한은 2026년 11월까지로 알려짐. 2023년 상반기 기준 HSD엔진 매출에서 삼성중공업이 27.1%, 한화오션이 19.9%를 차지한다고 알려짐. (매일경제) (<https://t.ly/7civX>)

### JP Morgan doubles down on product tanker newbuildings

JP모건이 자회사 Oceonix Service를 통해 중국 Guangzhou Shipyard International에 50,000DWT급 PC선 2척을 추가 발주했다고 보도됨. JP모건은 메탄을 MR탱커를 중국에 총 4척 발주했다고 언급됨. 선가는 척당 5,000만달러 이상으로 언급됨. 2026년 중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임. TotalEnergies와 용선 계약을 맺을 예정으로 알려짐. (Tradewinds) (<https://t.ly/194Z6>)

### Australian LNG plants' strike threat goes up a notch on workers' vote

Chevron의 Wheatstone 해상 LNG 플랜트 노조가 필요 시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됨. 노조는 임금 및 처우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알려짐. 지난 주, Chevron의 Gorgon LNG 터미널과 Wheatstone 터미널의 약 450명 노조가 투표를 진행한 바 있음. 이에 LNG시장 운임도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됨. 파업 진행 시 노조는 7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알려짐. (Tradewinds) ([https://t.ly/jsgC\\_](https://t.ly/jsgC_))

### Rejected: Chevron natural gas field development plan shot down for a second time

Chevron의 Cyprus 대규모 가스전 개발사업이 두번째로 승인 거절되었다고 보도됨. 새로운 합의안을 제안하기까지 30일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알려짐. 승인이 나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언급됨. Chevron과 Shell이 30%씩, NewMed가 30%의 지분을 소유하고, 약 1,240억CBM의 가스가 매장되어있다고 언급됨. (Upstream) (<https://t.ly/OKUNB>)

### "푸틴·에르도안, 조만간 러 소치서 회담…흑해곡물협정 논의"

러시아 대통령과 튀르키예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조만간 러시아에서 열릴 예정으로 보도됨. 이르면 9월초 성사될 예정임. 튀르키예 정부에 따르면 흑해곡물협상 관련 상황에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임. (연합뉴스) (<https://t.ly/2mT48>)

### 중국서 일본인학교 투석 등 반일 확산…중일 외교당국 충돌

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후 중국에서 일본에 항의 욕설 전화를 거는 등 반일 감정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됨. 중국 정부는 오염수 배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맞서는 등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조짐도 있다고 알려짐. 일본 단체여행의 예약 취소 현상도 속출하고 있다고 언급됨. (연합뉴스) (<https://t.ly/yHPWa>)